

##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 스트레스와 돌봄 태도가 노인간호 실천에 미치는 영향

이미라  
평택대학교 간호학과

### The Influence of Elderly Care Stress and Care Attitudes on Elderly Nursing Practice of General Hospital Nurses

Mi-Ra Lee  
Division of Nursing, Pyeongtae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가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대상자는 P시에 소재한 G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노인간호경험이 있는 183명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3년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간호 스트레스는 평균 2.96점, 돌봄 태도는 평균 3.56점 그리고 노인간호실천의 평균은 3.36점이었다. 노인간호 스트레스는 성별, 노인간호 교육 이수 여부 그리고 돌봄 태도는 연령, 직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노인간호 실천은 연령, 근무부서, 직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돌봄 태도는 노인간호 실천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r=.487, p<.001$ ), 노인간호 실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돌봄 태도( $t=6.830, p<.001$ )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5.2%이었다. 그러므로 노인간호 실천의 향상을 위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돌봄 태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전략적 대책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elderly care stress and care attitudes on the elderly nursing practice of general hospital nurses. The participants were 183 nurses with experience in elderly care, working at G general hospital in P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2 to 20, 2023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SPSS/WIN 27.0. The mean scores obtained for elderly care stress, care attitude, and elderly nursing practice were 2.96, 3.56, and 3.36, respectively. Elderly care stress differed significantly with the gender and experience of elderly education, whereas care attitud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age and position. Moreover,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tained for elderly nursing practice when considering the age, work unit, and position. Care attitud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lderly nursing practice ( $r=.487, p<.001$ ) and was the greatest influencing factor ( $t=6.830, p<.001$ ) of elderly nursing practice,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55.2%. Our study indicates that strategic measures are required to foster positive car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in order to improve the nursing practice of elderly care.

**Keywords** : Elderly, Care Stress, Care Attitude, Elderly Nursing Practice, Nurses

---

\*Corresponding Author : Mi-Ra Lee(Pyeongtaek University)

email: miralee21c@ptu.ac.kr

Received April 13, 2023

Revised May 30, 2023

Accepted June 2, 2023

Published June 30, 2023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22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7.5%로 이미 고령사회에 해당되며,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1].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의 만성 질병도 증가하여, 2020년 전체 노인의 84%가 1개 이상의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만성 질병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복합 이환자가 54.9%로 나타났다[2].

노인의 만성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의료서비스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노인의 70.6%가 지난 1개월 동안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지난 1년간 아프거나 다쳐서 병, 의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7.1%이었다[2]. 이와같이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병, 의원에 입원하는 노인이 많아짐에 따라 노인에게 직접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부담 및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환자의 경우 복합적인 건강문제, 인지기능 저하 그리고 와상 상태로 직접 간호를 필요로 하고, 욕창, 요실금, 장기적 유치도뇨 문제와 낙상으로 인한 골절 등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고 지속적인 간호요구로 인해 노인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는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3]. 특히 노인환자들은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간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항상 주의를 집중해야 하므로 부담감이 커져 스트레스를 받는다[4].

그리고 간호사는 노인환자들의 질병이환이 복잡적이며 중증도가 높고 위급한 의료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간호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반복해서 치료 및 처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하는 점과 낙상의 위험성이 높아 노인환자를 간호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5].

또한 간호사는 노인환자의 질병과 관련된 간호의 부담감 뿐만 아니라 노인환자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와 비협조적인 보호자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 보호자는 노인환자의 치료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협조적이거나 권위적인 보호자의 태도 등으로 간호사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크다[4].

이와같이 간호사의 노인환자 간호로 인한 누적된 스트레스는 노인간호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간호업무 수행도를 감소시킴으로써 노인간호의 질적 향상을 방해하게 된다[6].

노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춘 간

호사라 하더라도 노인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과도하면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7]. 그러므로 노인간호 실천을 잘하기 위해서는 노인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8]. 이에 간호사의 노인간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노인간호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인간호 스트레스 정도와 노인간호 스트레스가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 돌봄 태도란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진정한 마음으로 보살피는 행위로, 노인 돌봄 태도는 노인간호의 수준을 결정짓는 요소이다[9]. 노인의 다양한 건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해 전인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10].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돌봄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며, 노인 간호실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1,12]. 그러므로 노인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는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노화 과정과 질병 특성에 관한 지식, 노인의 특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8].

그리고 노인 대상자에게 노인간호 실천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노인 돌봄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노인 돌봄 태도의 긍정적인 정립을 위해서 노화에 대한 이해 및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9]. 그러므로 간호사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간호 실천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돌봄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간호실천은 노인의 건강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고유한 간호문제를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13]. 노인간호실천은 간호사들이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측면의 직접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에 대한 태도와 지식을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14].

종합병원은 복합적인 질병을 가진 중증도가 높은 노인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므로 간호요구와 중증도에 맞춤형 질적 간호를 제공해야 하며[15], 노인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노인 문제를 파악하고 직접 간호를 실천해야 한다[8]. 그리고 질 높은 노인간호 실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질병 관련 간호뿐만 아니라 노인을 전인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10]. 그러므로 노인

간호 실천은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기반하여 노인의 질적인 삶, 건강권 및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노인간호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16].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노인간호 실천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돌봄 태도 [12,17], 지식과 태도[17], 공감력[17], 의사소통과 간호 근무환경[18] 등이 있다. 특히 노인간호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8,19,20]의 대부분이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노인간호 스트레스와 돌봄 태도가 노인간호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다양한 중증 질병을 가진 노인들의 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노인간호 실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 스트레스와 돌봄 태도가 노인간호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전문적인 노인간호 실무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가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을 조사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을 파악한다.
- 3)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다.
- 4) 노인간호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을 조사하고, 이들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P시에 소재한 G 종합병원

간호부의 허락을 받은 후, 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중 65세 이상 노인환자를 직접 간호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데 동의한 간호사를 편의추출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설문 작성 중이나 작성 후에 연구 참여 철회 의사를 밝히면 즉시 철회가 가능하며 철회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또한 연구를 위해 얻은 모든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한 후 보관 기간이 끝나면 파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S사 커피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와 노인간호실천에 관한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는 수술실, 응급실,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료수집은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 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를 구하기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 크기 .15, 예측변수는 일반적인 특성 6개(성별, 나이, 근무부서, 임상경력, 직위, 노인환자 교육경험), 노인간호 스트레스 1개, 노인 돌봄 태도 1개, 노인간호 실천 1개로 총 9개를 투입했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66명이었다. 그러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85명에게 설문 조사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2부를 제외한 183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 2.3 연구 도구

### 2.3.1 노인간호 스트레스

노인간호 스트레스는 Kim과 Gu[21]의 도구를 Choi와 Lee[22]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23문항으로 노인간호 업무 스트레스(7문항), 노인환자로 인한 스트레스(8문항), 보호자로 인한 스트레스(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간호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oi와 Lee[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86이었다.

### 2.3.2 돌봄 태도

돌봄 태도는 Sanders 등[23]이 개발한 노화 의미 분별척도와 Maxwell과 Sullivan[24]이 개발한 도구를 기반으로 Joung과 Hyun[9]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노인에 대한 감정과 노인을 돌볼 때의 태도를 형용사

로 구성하였다.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oung과 Hyun[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 2.3.3 노인간호 실천

노인간호 실천은 Choi[14]가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측면의 직접 간호를 실천하는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항상 하고 있다", "가끔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전혀 하고 있지 않다"의 Likert 4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간호 실천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oi[1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 및 노

인간호 실천의 차이는 t-test, ANOVA 그리고 사후 검정은 Scheffe's test로 하였다.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노인간호실천에 미치는 변수는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172명(94.0%), 남성이 11명(6.0%) 이었으며, 연령에서는 29세 이하가 52명(28.4%), 30세~39세가 78명(42.6%) 그리고 40세 이상이 53명(29.0%) 이었다. 현재 근무하는 부서는 내과계 병동 53명(29.0%), 외과계 병동 31명(16.9%), 통합병동 43명(23.5%), 중환자실 30명(16.4%), 혈액투석실 26명(14.2%)이었다. 임상경력은 5년 이하 71명(38.8%), 6년~10년 52명(28.4%), 11년~15년 22명(12.0%) 그리

Table 1. Difference of Elderly Care Stress, Care Attitude and Nursing Practi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Care stress		Care attitude		Nursing practice	
			M±SD	t /F(p)	M±SD	t /F(p)	M±SD	t /F(p)
Gender	Female	172(94.0)	2.96±0.34	0.73(.046)	3.56±0.41	0.85(.395)	3.37±0.41	1.31(.194)
	Male	11(6.0)	2.89±0.84		3.46±0.38		3.20±0.38	
Age(years)	≤29 <sup>a</sup>	52(28.4)	2.88±0.39	2.38(.095)	3.49±0.36	6.12(.003) a,b<c <sup>†</sup>	3.30±0.52	3.48(.033) a,b<c <sup>†</sup>
	30~39 <sup>b</sup>	78(42.6)	2.97±0.30		3.50±0.42		3.31±0.36	
	≥40 <sup>c</sup>	53(29.0)	3.02±0.34		3.72±0.38		3.48±0.33	
Work unit	Medical ward <sup>a</sup>	53(29.0)	2.89±0.37	1.72(.147)	3.60±0.40	2.17(.074)	3.47±0.51	2.62(.037) d<a <sup>†</sup>
	Surgical ward <sup>b</sup>	31(16.9)	2.99±0.29		3.57±0.40		3.36±0.34	
	Comprehensive care ward <sup>c</sup>	43(23.5)	3.02±0.32		3.60±0.34		3.34±0.31	
	Intensive Care Unit <sup>d</sup>	30(16.4)	2.88±0.36		3.37±0.42		3.18±0.42	
	Hemodialysis unit <sup>e</sup>	26(14.2)	3.05±0.33		3.63±0.45		3.34±0.33	
Work career (years)	≤5	71(38.8)	2.90±0.37	1.45(.230)	3.50±0.37	2.50(.061)	3.30±0.49	1.63(.182)
	6~10	52(28.4)	3.02±0.32		3.54±0.47		3.34±0.38	
	11~15	22(12.0)	3.00±0.31		3.53±0.25		3.40±0.26	
	≥16	38(20.8)	2.96±0.32		3.72±0.41		3.47±0.35	
Position	Staff nurse <sup>a</sup>	144(78.7)	2.95±0.35	0.13(.875)	3.53±0.40	5.63(.004) a,b<c <sup>†</sup>	3.31±0.42	5.53(.005) a<c <sup>†</sup>
	Charge nurse <sup>b</sup>	28(15.3)	2.97±0.30		3.55±0.31		3.48±0.32	
	Head nurse <sup>c</sup>	11(6.0)	3.00±0.34		3.95±0.44		3.65±0.22	
Experience of geriatric nursing education	Yes	149(81.4)	2.98±0.33	2.10(.037)	3.58±0.42	1.64(.102)	3.37±0.36	0.90(.367)
	No	34(18.6)	2.85±0.36		3.46±0.33		3.30±0.58	

<sup>†</sup>Scheffe's test

고 16년 이상이 38명(20.8%) 이었다. 직위는 일반 간호사 144명(78.7%), 주임간호사 28명(15.3%), 수간호사 11명(6.0%) 이었다. 노인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149명(81.4%)이었다(Table 1).

### 3.2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

노인간호 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평균 평점이  $2.96 \pm 0.34$ 점, 돌봄 태도는 5점 만점에  $3.56 \pm 0.40$ 점 그리고 노인 간호실천은 4점 만점에  $3.36 \pm 0.41$ 점이었다. 노인간호 스트레스를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노인간호 업무 스트레스  $2.71 \pm 0.41$ 점, 노인환자로 인한 스트레스  $2.94 \pm 0.41$ 점 그리고 보호자로 인한 스트레스  $3.19 \pm 0.48$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Score of Elderly Care Stress, Care Attitude and Nursing Practice (N=183)

Characteristics	M±SD
Care stress(total)	2.96±0.34
Nursing tasks	2.71±0.41
Geriatric patients	2.94±0.41
Family protector	3.19±0.48
Care attitude	3.56±0.40
Nursing Practice	3.36±0.41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

노인간호 스트레스는 성별( $t=0.73, p=.046$ )과 노인간호 교육 이수 여부( $t=2.10, p=.037$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돌봄 태도는 연령 ( $F=6.12, p=.003$ )과 직위 ( $F=5.63, p=.004$ )에서 그리고 노인간호 실천은 연령 ( $F=3.48, p=.033$ ), 근무부서( $F=2.62, p=.037$ ), 직위 ( $F=5.53, p=.0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 3.4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과의 상관관계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과의 상관관계에서 돌봄 태도가 노인간호 실천( $r=.487, p<.001$ )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Elderly Care Stress, Care Attitude and Nursing Practice (N=183)

Characteristics	Care stress	Care attitude	Nursing practice
	r(p)	r(p)	r(p)
Care stress	1		
Care attitude	.050(.500)	1	
Nursing practice	.020(.790)	.487(<.001)	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Elderly Nursing Practice (N=183)

Variables	Model 1				Model 2				
	B	SE	$\beta$	t(p)	B	SE	$\beta$	t(p)	
(Constant)	54.026	1.112		48.585***	28.294	3.895		7.264***	
Age	30~39	0.426	1.141	0.033	0.373	-0.051	1.018	-0.004	-0.050
	≥40	2.039	1.465	0.145	1.391	0.395	1.326	0.028	0.297
Work unit	Surgical ward	-1.291	1.395	-0.076	-0.926	-1.142	1.242	-0.067	-0.919
	Comprehensive care ward	-1.718	1.265	-1.115	-1.358	-1.872	1.126	-0.125	-1.662
	Intensive Care Unit	-4.280	1.424	-0.249	-3.006**	-2.636	1.290	-0.153	-2.044*
	Hemodialysis Unit	-2.175	1.562	-0.119	-1.393	-2.031	1.390	-0.111	-1.461
Position	Charge nurse	1.789	1.402	0.101	1.276	2.397	1.251	0.136	1.916
	Head nurse	3.524	2.197	0.132	1.604	1.759	1.972	0.066	0.892
Care attitude					0.432	0.063	0.465	6.830***	
F(p)	2.895**				8.432***				
R <sup>2</sup>	0.343				0.552				
Adjusted R <sup>2</sup>	0.117				0.305				

\*p<.05, \*\*p<.01, \*\*\*p<.001

Reference group : Age:≤29, Work unit: Medical ward, Position: Staff nurse

### 3.5 노인간호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간호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노인간호 실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연령, 근무부서, 직위와 돌봄 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명목변수는 가변수 처리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 한계는 0.4~0.8로 0.1보다 크고, 분산팽창계수는 1.2~2.1로 10미만 이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2.049로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

모형1에서 연령과 근무부서, 직위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노인간호 실천의 변량을 34.3% 설명하였으며, 근무부서에서 중환자실( $t=-3.006, p<.01$ )이 영향요인이었다. 모형2에서는 돌봄 태도를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모형1에 비해 노인간호 실천의 변량을 20.9% 더 설명하여 55.2%이었으며, 돌봄 태도가 ( $t=6.830, p<.001$ ) 노인간호 실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 4. 논의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을 조사하고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노인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노인간호 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평균 2.96점으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Yoo[19] 연구의 2.95점, Nam 등[25] 연구의 2.93점과 비슷한 결과이다.

이와같이 종합병원 간호사가 노인간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노인환자는 복합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고 중증도가 높아 간호 업무량이 많기 때문이며, 노인환자의 문제요인을 사정하고 전문적인 임상적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다[26]. 또한 노인환자들은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로 인해 직접 간호가 많고 높은 집중도를 요하며, 인지기능 장애나 청력 장애로 여러번 반복해서 설명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환자를 간호할 때 스트레스가 많다[27]. 그러므로 간호사의 노인간호 업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간호 인력의 적절한 배치, 업무 분담 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20], 노인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노인간호 실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26].

노인간호 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로는 보호자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환자와 관련된 스트레스, 업무 관련 스트레스의 순이었는데, 이는 선행연구[8,19,28] 결과와 일치한다. 보호자와 관련된 스트레스 문항 중 ‘공격적이거나 권위적인 보호자를 대할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으며, 그다음에 ‘보호자로 인해 간호업무가 방해될 때’, ‘보호자가 간호사의 지시 및 충고를 따르지 않을 때’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유지되거나 향상되려면 노인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하는 간호사의 스트레스가 관리되어야 한다[7]. 그러므로 간호사의 노인간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인환자 보호자 요인에 대한 관리 및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보호자를 대응할 수 있는 메뉴얼 구축 등이 필요하다[8].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간호 스트레스는 여성과 노인간호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간호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간호사의 노인간호 스트레스가 높았으나, 선행연구[8,19,20]에서는 성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추후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 하는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간호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간호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Park[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왜 노인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의 스트레스가 높은지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어, 추후 연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노인 돌봄 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6점이었는데, 이는 Kang 과 Jeong[12] 연구의 3.39점과 비슷한 결과이다. 그러나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Kwon[29]의 3.89점보다는 낮았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근무지가 종합병원으로 급성기 질병을 중심으로 치료와 간호를 수행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처럼 노인환자를 오랜 기간 돌보는 업무환경에서 노인에 대해 익숙하고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것과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29]. 그러므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노인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노인의 돌봄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간호사는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노화 과정이나 질병의 특성에 대한 지식, 노인의 특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8]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 돌봄 태도는 연령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im과 Kwon[2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40세 이하에서 돌봄 태도가 낮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의 연령이 20대가 28.4%, 30대가 42.6%로 비교적 젊은층으로 노인과의 접촉의 기회가 적고 노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태도를 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17] 노인 돌봄 태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특히 젊은 층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노인간호 관련 보수교육을 통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줄이고 긍정적인 돌봄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직위에서는 수간호사의 돌봄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Kim과 Kwon[29]의 연구에서는 직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수간호사의 돌봄 태도가 높은 것은 수간호사들은 대부분 임상경력이 많아 노인환자 간호 경험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노인간호실천은 4점 만점에 평균이 3.36점으로 Kang과 Jeong[12] 연구의 3.21점, Park[20] 연구의 3.23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Kwon[29] 연구의 3.63점보다는 낮았다. 이는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식사, 이동하기 등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 제공자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반면, 종합병원에서는 급성기 질병을 중심으로 치료와 간호를 수행하기 때문에 노인환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간호해야 하는 역할의 차이[20]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노인환자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노인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간호는 물론 좀 더 적극적으로 노인간호실천의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인간호 실천은 연령, 근무부서, 직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0세 이상, 내과계 병동, 수간호사의 노인간호 실천이 높았다. 선행연구[12,18,29]에서도 40세 이상에서 노인간호실천이 높았다. Kim과 Kwon[29]의 연구에서도 책임간호사 이상에서 노인간호 실천이 높아 본 연구결과가 유사하다. 이는 연령이 많고 직위가 높은 간호사들은 풍부한 임상경험을 통해 노인환자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 노인간호 실천을 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내과계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노인간호 실천이 높았는데, Choi[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내과계 병동에는 대부분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입원하기 때문에 노인환자 간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노인간호 실천이 높은 것을 생각된다.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와 노인 간호실천과의 상관관계에서 돌봄 태도가 노인간호 실천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12,17,29] 결과와 일치

한다. 즉, 노인 돌봄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간호실천을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노인 돌봄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간호 실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돌봄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ang과 Jeong[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노인에 대한 돌봄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간호 수행도가 높으며[29], 노인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노인의 다양한 건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체적 차원 및 질병에 대한 전문지식의 습득을 넘어 노인을 전인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30]. 또한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노인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17] 긍정적인 노인 돌봄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을 조사하고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노인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노인간호 스트레스는 4점 만점에 평균 2.96점이었으며, 하위영역에서는 보호자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다. 노인간호 스트레스는 여성과 노인간호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노인간호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돌봄 태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6점이었고, 연령이 많고 직위가 수간호사인 경우 노인 돌봄 태도가 높았다. 노인간호 실천은 4점 만점에 평균이 3.36점이었으며, 40세 이상, 내과계 병동, 수간호사의 노인간호 실천이 높았다. 돌봄 태도는 노인간호 실천에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노인간호 실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돌봄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노인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돌봄 태도를 향상시켜 노인간호 실천을 잘하도록 하는 전략적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 스트레

스, 돌봄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노인간호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노인간호 실천을 향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사들에게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지역과 대상자를 확대한 연구를 통해 간호사의 노인간호 스트레스, 돌봄 태도 및 노인간호 실천과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비교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노인간호 실천을 향상하기 위해 긍정적인 돌봄 태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2022 Statistics of the elderly, Available from: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tag=&act=view&list\\_no=420896&ref\\_bid](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tag=&act=view&list_no=420896&ref_bid) (accessed March, 2, 2023)
- [2]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0 Elderly Survey,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react/jb/si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6496&page=1](http://www.mohw.go.kr/react/jb/si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6496&page=1) (accessed March, 2, 2023)
- [3] K. S. Han, N. S. Kim, J. H. Kim, K. M. Lee, "Influencing factors on symptoms of stress among hospital staf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4, No.7, pp.1307-1314, 2004. DOI: <https://doi.org/10.4040/jkan.2004.34.7.1307>
- [4] G. E. Lee, J. K. Cho, S. H. Ham, M. Y. Jeong, "Nurses' Experiences in Caring for Elderly Inpatients in a Medical Center", *J Korean Gerontol Nurs*, Vol.16, No.3, pp.220-23, 2014. DOI: <https://doi.org/10.17079/jkgn.2014.16.3.220>
- [5] H. Cho, S. Kwon, Y. Lee, Y. Kim, J. Kang, "Clinical Nurses' Safety Management Experiences with Older Patients", *J Korean Gerontol Nurs*, Vol.22, No.2, pp.105-116, 2020. DOI: <https://doi.org/10.17079/jkgn.2020.22.2.105>
- [6] B.N. Kim, H. S. Oh, Y.S. Park, "A study of nurses' resilience, occupational stress and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20, No.1, pp.14-23, 2011. DOI: <https://doi.org/10.5807/kjohn.2011.20.1.014>
- [7] J. Y. Choi, Y.J. Lee, "Research on nurses' stress for elderly care and stress -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0, No.8, pp.275-86, 2012. DOI: <https://doi.org/10.14400/JDPM.2012.10.8.275>
- [8] J. Y. Lee, E. S. Nam, E. J. Son, J. H. Hwang, H. R. Nam, "Influence of Nurses's Stress related to Geriatric Nursing on Nursing Practice for Older Patients in Hospital", *J Korean Gerontol Nurs*, Vol.18, No.2, pp.53-61, 2016. DOI: <https://doi.org/10.17079/jkgn.2016.18.2.53>
- [9] H.Y. Joung, H. J. Hyun, "The effects of senior simulation programs on elderly care facilities employees' attitudes for elderly care, understanding of the aged,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Journal of Acad Community Health Nurs*, Vol.23, No.2, pp.222-230, 2012. UCI: G704-001647.2012.23.2.006
- [10] H.S. Oh, H.S. Jeo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gerontological nursing education program: consist of knowledge about nursing care for elderly and elderly simulation experi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3, No. 4, pp.1654-1664, 2012. DOI: <https://doi.org/10.5762/KAIS.2012.13.4.1654>
- [11] M. Courtney, S. Tong, A. Walsh, "Acute-care nurses' attitudes towards older patients: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 of Nursing Practice*, Vol.6, pp.62-69, 2000. DOI: <https://doi.org/10.1046/j.1440-172x.2000.00192.x>
- [12] M. R. Kang, K. S. Jeong,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and Geriatric Nursing Practice of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7, pp.127-137, 2018. DOI: <https://doi.org/10.5392/JKCA.2018.18.07.127>
- [13] H. E. Kim,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 of the Elderly, and Performance on Elderly Care*,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Pusan, Korea, pp.21, 2009.
- [14] H. J. Choi, *A study on the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the nurse for geriatric nursing*,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pp.59, 2002.
- [15] E. J. Kim, K. H. Lee, "Knowledge, Attitude, and Performance of Nurses in a Tertiary Hospital toward Older Adults", *J Korean Gerontol Nurs*, Vol.22, No. 2, pp.65-173, 2020. DOI: <https://doi.org/10.17079/jkgn.2020.22.2.165>
- [16] H. S. Kang, K. W. Sung,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Geriatric Nursing Practice of Nurses in Long-term Care Hospitals", *J Korean Gerontol Nurs*, Vol.17, No.1, pp.29-37, 2015. DOI: <https://doi.org/10.17079/jkgn.2015.17.1.29>
- [17] W. R. Ko, H. H. Jong, "The Effect of the Knowledge, Care Attitude, and Empathy of General Hospital Nurses on their Nursing Performance toward Elderly Pati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 11, pp.626-637,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11.628>
- [18] K. O. Kwon, H. Y. Jang,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 Ability and Nursing Work Environment on Geriatric Nursing Practices of Nurses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s: A Cross-Sectional Study”, *J Korean Gerontol Nurs*, Vol. 24, No.2, pp.123-132, 2022.  
DOI: <https://doi.org/10.17079/jkgn.2022.24.2.123>
- [19] J. Y. Yoo, *Effect of geriatric nursing stres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geriatric nursing practice in a tertiary hospital*,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pp.27, 2022.
- [20] M. S. Park, *The Influence of Geriatric Nursing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Geriatric nursing Practice in Clinical Nurses*,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Korea, pp.28, 2022.
- [21] M.J. Kim, M. O.Gu, “The development of the stress measurement tool for staff nurses working in the hos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14, No.2, pp.28-37, 1984.  
DOI: <https://doi.org/10.4040/jnas.1984.14.2.28>
- [22] J. Y. Choi, Y. J. Lee, “Research on Nurses, Stress for Elderly care and Stress-Coping Strateg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0, No.8, pp.275-286, 2012.  
DOI: <https://doi.org/10.14400/JDPM.2012.10.8.275>
- [23] G. F. Sanders, J. E. Montgomery, J. F. Pittman, C. Balkwell,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3, No.1, pp. 59-70,1984.  
DOI: <https://doi.org/10.1177/073346488400300107>
- [24] A. J. Maxwell, N. Sullivan, “ Attitudes toward the geriatric patient among family practice resident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Vol.28, No.8, pp. 341-345, 1980.  
DOI: <https://doi.org/10.1111/j.1532-5415.1980.tb01095.x>
- [25] H. R. Nam, E. J. Lee, H. S. Heo,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Geriatric Nursing-related Stress in Nurses Caring for Older Patien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9, No.1, pp.20-28, 2020.  
DOI: <https://doi.org/10.5807/kjoh.2020.29.1.20>
- [26] G. E. Lee, J. K. Cho, S.H. Ham, M. Y. Jeong, “Nurses' experiences in caring for elderly in patients in a medical center”.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Vol.16, No.3, pp.220-30, 2014.  
DOI: <https://doi.org/10.17079/jkgn.2014.16.3.220>
- [27] H. M. Cho, , S.H. Kwon, Y. h. Lee, Y. J. Kim, J. M. Kang, “Clinical Nurses' Safety Management Experiences with Older Patients”, *J Korean Gerontol Nurs*, Vol.22, No.2, pp.105-116, 2020.  
DOI: <https://doi.org/10.17079/jkgn.2020.22.2.105>
- [28] S. J. Kang, H. A. Yeom, “The Influence of Care Stress for Older Patients, Self-perceptions of Aging, Aging Anxiety on Retirement Preparation in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30, No.4, pp.175-185, 2021.  
DOI: <https://doi.org/10.5807/kjoh.2021.30.4.175>
- [29] Y. K. Kim, S. H. Kwon, “Effects of Empathy and Attitude in Caring for Elders by Nurses in Geriatric Nursing Practice in Long-term Care Hospitals”, *J Korean Gerontol Nurs*, Vol.19, No.3, pp.203-213, 2017.  
DOI: <https://doi.org/10.17079/jkgn.2017.19.3.203>
- [30] H. S. Oh, H. S. Jeo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gerontological nursing education program: consist of knowledge about nursing care for elderly and elderly simulation experi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3, No.4, pp.1654-1664, 2012.  
DOI: <https://doi.org/10.5762/KAIS.2012.13.4.1654>

이 미 라(Mi-Ra Lee)

[정회원]



- 2001년 8월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간호교육학 석사)
- 2005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평택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노인, 간호사, 치매